

'적기 영농 지원' 나주시, 농촌일손 앞선 창구 운영

오는 5~6월 농번기 농촌인력 확보 총력 혁신도시 공공기관·유관기관 참여 독려

나주시가 부지깡이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기 인력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촌 일손 돕기 앞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창구에선 농가 수요를 파악한 후 영농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공헌' 책무가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공서,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력 지원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독거노인, 장애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의 배 산지인 나주는 올해 저온 피

해가 적어 배 인공수분,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작업 등에 예년보다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되도록 숙련된 농작업 인력 앞선에 노력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도시민 유희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 농가가 있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지역 공동체 실현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 앞선 창구는 나주시 앞선 창구 외에도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배원에농업협동조합, 새나주시농어업회의소에서도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선 인력풀을 구성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연결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 깨끗한 구례 만들기

구례군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지역 내 도로변(군청-공설운동장) 2km 구간에서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줍기를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지도자 5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고 청결한 구례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가지 일대와 도로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청소했다.

구례군 새마을회 정연숙 회장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후와 환경,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호 군수는 "깨끗한 구례 만들기에 새마을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줘 감사하다"며 "이번 봉사 활동을 계기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고 우리 구례가 더욱 청결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5월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지원

화순군은 23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백만 원)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백만 원) ▲외상성질단 진단비(1백만 원) 3종이 추가되어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명품농업대학, 귀농귀촌 박람회서 '농업 노하우' 공유

곡성군은 지난 19일, '제14기 곡성명품농업대학' 귀농귀촌반 교육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를 방문해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교육은 청년과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얻고, 정부와 기초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초보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 길라잡이 상담을 통해 귀농 선배들에게 작목 선정과 그동안 직접 겪은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듣고, 농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생생하고 내실 있는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김귀례 교육생은 "다양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초보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이번 현장 교육이 다양한 귀농정책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남다른 식감과 품미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전남 담양 딸기가 해외에서 첫 로열티를 받는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린도그룹 본사에서 TSE 그룹과 담양육성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에 대한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한국 재외동포 기업)이며 TSE그룹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 농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곳이다.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인 '어반 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계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담양군은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육성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게 된다.

TSE그룹은 담양군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도심과 근교에 대규모 딸기 식물공장을 조성하고, 딸기 연중 재배, 재배 면적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딸기 시식 테스트 결과, 죽향이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조사돼 향후 담양 딸기의 본격 판매가 이뤄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박종영기자

'주민 문화·복지 거점'...장성 황룡면 문화센터 준공

장성군 황룡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문화센터가 준공됐다.

장성군은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건립을 추진한 '황룡면 문화센터'가 최근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센터는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이 사업은 총 80억원을 들여 문화센터, 소풍광장·안전마을길을 조성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센터는 4017㎡ 규모 부지에 건물·주차장·쉼터·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실내에 다목적 강당과 세미나실, 마을 공유주방을 설치해 각종 교육과 모임 등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한다.

황룡시장 부근에 조성한 '황룡 소풍광장'(장산리 9-23)은 시장 고객과 주민을 위한 교류·휴식 공간으로 주차장 166면과 녹지, 보행로, 팔각정, 긴의자(벤치) 등을 설치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새롭게 문을 연 문화센터가 황룡면 부흥을 이끌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